

빛고를 광주, 빛나는 광주

5·18 광장을 가로지르던 사람들이 잠시 발길을 멈춰 어딘가를 응시한다. 웅장한 음악에 맞춰 옛 전남도청 건물 벽면으로 화려한 꽃무더기가 쏟아지기 시작하고, 마치 퍼즐을 맞추듯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가는 도청의 모습을 한참 바라본다. 바로 옛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안내센터에서는 화면으로 펼쳐나올듯한 호랑이와 유쾌한 스마일 아이콘들을 만날 수 있다.

광주를 대표하는 문화 관광 콘텐츠를 꾸미는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벨트 콘텐츠가 15일 정식 개막식을 시작으로 첫선을 보였다. 광주시는 지난 2014년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로 선정된 이후 창의도시 광주의 정체성 강화를 위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사업비 180억원을 들여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벨트 조성사업을 5개 권역별로 추진 중이다.

이날 공개된 작품은 1·2권역을 채우는 콘텐츠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광주교에 걸쳐 설치된 작품들은 걸어서 산책하며 관람할 수 있다. 또 단순히 '감상'에 그치지 않고, 버스킹 등 시민들의 참여가 함께 어우러져 '또 다른'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것도 특징이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일원을 채우는 1권역(예술감독 진시영)은 '민중과 인권'을 테마로 옛 전남도청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벨트 조성사업 1·2권역 공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일대, 금남로공원, 광주천에 미디어아트 조성 '기억하기 위한 방법들'·'금남나비정원' 등 설치...버스킹 공간 활용

분관과 전당 안내센터를 활용했다. 도청 본관의 경우 5·18 광장과 전남도청이 '오월'의 현장임을 감안해 작품을 통해 역사적 사실을 기억하고, 미래로 향하는 의지를 함께 담은 작품을 선보인다. '광주생각'(SPIRIT)을 주제로 몰입형 미디어파사드와 걸어가며 자유롭게 관람 가능한 워크스루(Walk Through)형 미디어아트 공간으로 꾸몄다.

나명규 작가의 '별이 된 사람들'은 광주 정신을 은유적 이미지로 표현했으며 이종석 작가의 'Trace from Here'은 웅장한 음악과 인물들의 역동적인 퍼포먼스가 어우러진 작품이다. 박준범 작가의 '기억하기 위한 방법들'은 기존 미디어아트 작품과는 결이 다른 스타일로 눈길을 끌었다. 특별한 음악 없이 마치 거대한 불꽃으로 집을 짓는 듯한 음향 효과가 어우러져 관람객들을 몰입시킨다.

5·18광장은 현재 광주시 동구청이 진행하고 있는 진시영 작가의 분수대 미디어아트 작품이 이번달 말 공개되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며 흥미로운 밤의 풍경을 만들어낼 것으로 보인다.

인근 문화전당 안내센터는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공간임을 고려해 발랄한 아이디어가 눈에 띄는 시범 콘텐츠 4종을 제작했다. 안내센터 상부에 설치된 '통TONG'은 시민과 도시가 소통하는 예술 공간으로 국내 최초의 원통형 LED 디스플레이에 아나모픽(Anamorphic) 연출기법을 적용한 미디어아트 영상을 만난다. '통TONG'은 'Turn On Next Gwangju'의 약자로 내일의 광주로 나아가는 변화의 통이라는 의미를 담았다.

작품은 젊은 감성이 돋보인다. 우주를 유영하는 우주인들의 모습, 화면에서 펼쳐나올 것 같은 호랑이 모습, 아름다운 무등산의 사계, 도시를 상징하는 다양한 이미지로 구성된 작품을 만날 수 있으며 한계문 작가의 '빛의 상들리에'도 눈길을 끈다. 또 시민들이 촬영한 개인의 얼굴 사진으로 도시 표정을 바꾸는 시민참여형 미디어아트는 흥미롭다.

2권역(예술감독 신도원) 금남로공원과 광주천 일대는 '광주치유(HEAL)'를 주제로 시민체험 및 공감의 힐링 드로잉스루(Drawing Through) 미디어아트 갤러리로 조성됐다.

지난해 12월 선을 보인 '금남나비정원'은 '예술적 영감을 퍼뜨리는 빛의 나비'를 콘셉트로 하는 디지털 테마공원이다. 주간에는 LED 조형물인 '나비상자'와 LED벤치인 '나비침터'에서 콘텐츠를 감상할 수 있고 야간에는 35m 길이의 인공 폭포인 벽면에 프로젝터 7대로 구현한 '나비폭포'와 홀로그램 영상 및 빛 레이저 쇼가 함께 만들어내는 '별빛정원'을 추가로 관람할 수 있다.

광주천 광주교의 '빛 무리'는 치유의 빛으로 만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안내센터에 설치된 미디어아트 작품은 야간(위)과 주간 모두 감상할 수 있다.

어진 야외형 미디어아트 체험 공간이다. 광주교 위 교각 소형물을 중심으로 레이저 쇼가 연출되며 버스킹 공연 플랫폼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했다.

옛 전남도청 본관은 오후 8시, 금남로공원은 오후 6시30분, 광주교는 오후 6시부터, 전당 안내센터는 상시 감상이 가능하다.

한편, 광주시는 올해 말까지 3·4권역인 사직공원은 동물원 등 추억의 모티브를 활용한 테마파크형 미디어아트공원을 조성하고 양림동 일원은 근대문화유산 활용한 미디어콘텐츠를 연출한다. 내년까지 5구역인 광주송정역을 광주를 한눈에 보여주는 휴먼플랫폼으로 마무리, 미디어아트 창의 벨트 사업을 완성할 계획이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미디어아트 창의벨트 1권역 중 하나인 옛 전남도청 본관에서 만나는 나명규 작가의 '별이 된 사람들'

이야기로 풀어내는 클래식 마법

광주시향 오티움 콘서트 'Magic' 4월28일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광주시립교향악단(예술감독 홍석원)의 GSO 오티움 콘서트 II 'Magic'이 4월 28일 오전 11시와 오후 7시30분, 두 차례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무대에서 펼쳐진다. 광주시향의 '오티움 콘서트(Otium concert)'는 클래식 음악을 해설로 풀어내 편안하게 감상할 수 있는 음악회다.

이날 공연에서는 광주시향 부지휘자 김영인의 지휘로 마법에 관한 다양한 곡을 모아 신비롭고 모험적인 음악을 들려준다.

공연은 마술피리를 가지고 파미나 공주를 구하려 가는 타미노 왕자의 사랑 이야기인 모차르트의 오페라 '마술피리' 서곡으로 시작해 리스트가 피사의 칸토 산토 교회당의 벽화 '죽음의 승리'에서 영감을 받아 작곡한 '죽음의 무도', 요정의 왕인 오베론이 엇갈린 사랑의 인연들을 잠재우고 마법을 풀어주는 내용인 멘델스존의



지휘자 김영인

'한여름 밤의 꿈' 중 '녹턴', 마녀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드보르작의 '정오의 마녀' 등으로 이어진다.

특히 이날 협연자로 무대에 오르는 피아니스트 일리아 라쉬코프스키의 폭발적인 연주가 돋보일 '죽음의 무도'가 기대를 모은다. 러시아 출신인 일리아 라쉬코프스키는 하마마스 국제 피아노 콩쿠르 1위, 킨엘리제베스 콩쿠르 4위 등 세계 유수의 콩쿠르를 석권한 후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현재 성신여대 음악대학 초빙교수로 재직 중이다.

전석 1만원으로 광주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와 티켓링크에서 예매할 수 있다. 문의 062-524-5086.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피아니스트 일리아 라쉬코프스키

개인·공간·물건·스토리 '관계의 합성'

31일까지 호랑가시나무 창작소 입주작가 9명 전시

'호랑가시나무 아트폴리곤'은 양림동 호랑가시나무 언덕에 위치한 숲속의 미술관이다. 1950년대 건축돼 선교사들이 1998년까지 사용하던 적벽돌 건물은 문화단체 '아트주'가 리모델링해 레지던시 창작공간, 게스트하우스, 전시공간으로 활용 중이다.

아트폴리곤은 해마다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를 초청, 호랑가시나무 창작소에서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2021년 호랑가시나무 창작소 입주작가들의 작품을 만나는 전시회가 오는 31일까지 호랑가시나무 아트폴리곤에서 열린다.

'관계의 합성'전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는 구래연, 김경목, 김선행, 김유나, 김재원, 김혜연, 윤미지, 이진경, 최형성 등 9명의 입주작가가 참여해 회화, 사진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선보인다.

가장 기본적인 단위원 '개인'에서 시작된 관계는 서로의 이야기가 그물처럼 얽히면서 숱한 스토리를 만들어낸다.

각 개인의 환경과 경험에서 출발한 각기 다른 생각들은 내면의 발전과 서로의 관계를 만들어가며 작품으로 환원되고 개성으로 표출된다.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유례없는 팬데믹은 개인과 집단 등 다양한 '관계'에 대해 고민할 시간을 줬고, 작가들은 이 질문에서 창작의 동기를 얻어 레지던시에 머물며 자신만의 작품을 완성했다.



김유나 작 '꽃밭인데, 내가 좋아하는 꽃은 아니야'

전시에서는 구래연의 '살아있는 관계', 김선행의 '잡은 기둥의 부유물들', 김재원의 '두 개의 정원', 김혜연의 '우리 이야기 잘도 잔다', 윤미지의 '조간대', 이진경의 '진경산수(眞景山水)', 김유나의 '꽃밭인데, 내가 좋아하는 꽃은 아니야' 등 다양한 시각으로 관계의 문제를 풀어낸 작품을 만날 수 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정신相生위원회 '광주 역사문화학교' 수강생 모집

광주를 일컬어 빛고을이라고 한다. 빛이 지닌 창조성은 2000년 전 신창동 유적지에서 확인된 적 있다. 의향의 바탕이 된 광주정신에는 창조성도 결부돼 있다.

빛고을 광주의 광주정신 정체성 확립을 위한 역사문화학교가 개설돼 눈길을 끈다. 광주정신相生위원회가 '광주 역사문화학교'를 개설하고 제1기 역사부문 교육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

이번 역사문화학교는 15일부터 진행돼 오는 7월 26일까지(매주 화요일 오후 2시) 5·18민주화운동기록관 7층 대강당에서 20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강사는 남도역사연구원장인 노성태 광주 역사문화학교 초대 학장이 맡았으며 실내 강의와 답사로 이루어진다.

지난 15일 첫 강의인 광주의 역사 개관을 시작으로

22일에는 이현채 광주정신相生위원회 위원장의 '세계 불의 날 기념 광주천 시민지 현장탐방견기(탐사강의)'가 펼쳐진다.

이후 '광주공원·사직공원이 품은 역사 원형'(29일), '역사 속에서 축적된 광주정신 '정의로움''(4월 5일), '광주공원·사직공원 탐방'(12일, 답사), '3·1운동과 양림동, 정음성 탐방'(19일, 답사), '도로명이 된 광주의 인물'(26일, 답사), '광주의 서양촌, 양림동'(5월 3일), '신창동 유적과 마약'(10일), '100년 전 광주의 모습과 오늘'(17일), '선교사의 눈에 비친 광주 광주인'(24일), '안중근 의사와 광주'(31일) 등이 진행된다. 접수는 29일 오후 2시까지이며 수강료는 10만원. 문의 010-4497-1187. /박성현 기자 skypark@

광주비엔날레 사무처장에 윤창욱 전 광주시 총무과장 선임

광주비엔날레 신임 사무처장에 윤창욱(사진) 전 광주광역시 총무과장이 선임됐다.

윤 사무처장은 앞으로 사무처의 인력, 물자, 시설, 예산 등 사무의 조정 및 집행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해남 출신 윤 처장은 지난 1992년 신안군에서 공직을 시작해 30여 년 전남도와 광주시 요직을 두루 거친 행정 전문가이다. 국토교통부 산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행정수도를 조성하는 일에 기여했으며 광주시 혁신도시담당관, 균형발전정책과장, 총

무과장 등으로 재직해 온 바 있다. 윤 신임 사무처장은 기획·총무통으로 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 때에는 대회 기획 사무관으로 재직하면서 국제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른 경험이 있다.

윤 신임 사무처장은 "30여 년 간 공직에서 쌓아온 행정 경험과 직관을 기반으로 내년 개막하는 제14회 광주비엔날레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버팀목이 되겠다"고 밝혔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